시로 읽는 성보순례
솔바람에 나부끼는 석탑
국보 제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칼을 갈 땐 숫돌을 쓰고
나무를 다룰 땐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땐 지혜를 써라. 〈잡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윤 3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8 호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아쇼까 4사자상 한국탑에 첫 출현

5일, 삼천사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 봉찬 법회
불사리 7과… 〈금강경〉 사경 600부 봉안

인도 아쇼까 석주의 '4사자상'이 한국의 석탑에 최초로 나투어 시선을 끌고 있다. 삼각산 삼천사(주지 성운)는 5월 5일 오색 영롱한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한 '세존 진신 사리 9층 불탑' 봉찬 법회를 봉행했다.

오대산 월정사 8각 9층탑(국보 제48호)과 초전 법륜지인 인도 사르나트 아쇼까 석주 4두 사자상을 원형 그대로 접목한 탑신 15m의 이탑은 한국 석탑의 새로운 양식으로, 초기 불교와 대승보살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상륜부의 4사자상은 8정도의 가르침이 담긴 법륜에 안치 됐다. 9류 중생의 안녕과, 보살이 화엄 10지에 이른후 정토세계의 9품 연대에 오르기를 발원하는 보리심이 9층탑에 그대로 묘사 됐다. 기단과 탑신부에는 석굴암 8부 신장과 사천왕상, 8보살상과 8여래불이 양각으로 조각됐다.

불탑 복장에는 주양자 박사(前 보건복지부 장관) 내외가 미얀마 대승정으로부터 전수받은 세존사리 7과와 높이 16.5㎝의 작은 금동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상, 대장경 1질, 금강경 사경 600부, 순금 108염주와 거북이, 열쇠, 은, 호박, 칠보, 수정,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등 불자들의 정성어린 공양물이 봉안됐다.

특히 금강경 사경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과 함께 참회와 감사의 편지를 담아 자기 성찰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공교롭게도 사경책이 600부여서 불자들은 반야 600부를 상징하게 됐다며 환희심을 냈다. '아쇼까왕의 복지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비실천이 불교의 좌표임을 역설해온 성운 스님은 평화·생명존중을 천명한 아쇼까왕의 '담마칙령' 정신을 탑에 새기기 위해 아쇼까왕의 상징인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렸다.

은은한 범종 소리에 이어 개탑이 선언되자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면서 법신 여래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이 사바세계에 나투었다. 이날 봉찬 법회에는 주양자 박사 내외와 이재오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 인근 군부대 부대장 등 지역인사들과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운 스님은 법어에서 한글로 사성제 게송을 대중이 합송하도록 이끈 후 "오늘의 불탑은 금강경을 사경한 600명의 서원이 응집돼 법신사리로 나투신 것"이라며 "감사하는 생활은 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다"고 설했다.

봉찬법회는 고보현행 총신도회장의 발원문 봉독, 육법공양,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봉탑사, 내빈 축사, 삼천사 후임 주지로 내정된 동출 스님의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마애석불(보물 제657호), 종형사리탑(세존사리 3과 봉안)과 함께 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삼천사는 이날 9층 불탑 봉찬으로 또 하나의 적멸보궁이 됐다. 불탑 봉찬에 이어 선망호국 충혼과 부모형제, 애혼 고혼을 위한 윤3월 천도대재를 거행, 법계의 안녕을 축원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삼각산에 나툰 아쇼까의 발원 삼각산 삼천사(주지 성운)는 5월 5일 '세존 진신사리 9층 불탑 봉찬 법회'를 봉행했다. 높이 15m의 이 석탑은 한국 최초로 시도한 양식의 석탑으로서 월정사 9층탑 모형에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왕이 불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웠던 석주의 4사자상 원형을 그대로 접목했다. 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했으며, 대장경 1질, 금강경 사경 600부, 순금 108염주 등 불자들의 공양물을 함께 봉안했다. 제막식과 봉찬법회를 마친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아쇼까왕의 평화와 생명존중사상을 기리고 보살의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도박 사태에 고개 숙인 조계종

종정 · 총무원장 · 백양사 스님 국민께 참회

조계종 종정 스님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백양사 대중도 최근 불거진 도박 사태에 대해 참회했다.

자승 스님은 5월 11일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립니다'는 제하의 참회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종단 자숙과 참회 입장을 표명했다.

자승 스님은 "인천의 스승이 돼야 할 수행자들이 최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해 불교를 아끼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종단 책임자로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참회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15일부터 100일 동안 108배 참회 정진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했으며, 주요 지도자들의 연속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정 진제 스님도 9, 10일 양일간 열린 봉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은 습기를 좇아 못난 짓을 한 것"이라며 "내가 대신 참회한다"고 머리

총무원 부실장 일괄 사표 제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 찬물

를 숙였다. 또, 도박을 한 이들에게는 "시주밥을 먹을 자격도, 먹물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해당 사찰인 백양사 대중도 10일 발표한 참회문에서 "이번 사태로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깊이 엎드려 참회한다"고 밝혔다.

백양사 사태는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의 일괄 사퇴로까지 번졌다. 부실장 스님들은 10일 자승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총무원의 한 부장 스님은 "중앙에서부터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벌어진 도박 사태로 봉축 분위기에 찬물이 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 마음이 착잡하다. 도박을 한 쪽도 이를 녹화해 고발한 쪽도 모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사찰 관계자는 "불자들의 최대 축제인 봉축 행사에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끄러운 한국불교의 자화상

방장 49재 참석 스님 8명 '밤샘 도박' 물의

미리 몰카 설치한 듯
성호스님 검찰에 고발

청정승가를 자부했던 조계종이 도박 사건으로 크게 휘둘리고 있다.

문제의 진원은 입적한 백양사 방장 수산스님의 49재가 열린 4월 23일부터 24일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판을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이 모습은 누군가 가구 안에 광각렌즈가 장착된 폐쇄회로 TV에 기록됐다. 위치 역시 도박하는 모습을 담기에 최적이어서 의도된 설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사태를 보고받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즉각 호법부에 사실 관계 파악 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자승 스님 등의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1인 시위를 펼쳤던 성호 스님의 검찰 고발은 사태를 더욱 불거지게 했다. 성호 스님은 5월 9일 도박 사건에 연루된 A, B스님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A스님과 법명 미상의 스님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새 소위 포커 도박을 했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님은 폐쇄회로 TV 기록과 관련 증거물도 제출했다.

신중일 기자

노동문제 해결,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 노동위 설치 · 운영령 입법예고

사회 양극화로 첨예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9일 '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10명과 사회부장이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열린다.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종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에 관한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노동관련 시민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 △노동관련 연구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중일 기자

템플스테이 새로운 10년 준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주년 기념사업 '다채'

세미나, 전시회 통해 회고·전망
통합 브랜드 구축으로 내실 다져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템플스테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슬로건으로 새 10년을 시작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이 기획한 10주년 사업은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회고와 전망' △세계가 참여하는 '세상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국민과 함께하는 '10주년 기념 축제'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회고와 전망에서는 지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역사 기록집 발간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템플스테이 10년,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6월 12일 열린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제도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 구축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기획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세상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청소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실직자, 해직자 등 사회 통합과 치유를 위한 기획 템플스테이부터 멘토링, 명상 브런치 등 특별 이벤트 사업으로 꾸며진다.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문화축제는 오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10월 1일 열릴 템플스테이 콘서트에서는 템플스테이 10년의 미래 선언, 브랜드 포트폴리오 선포식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888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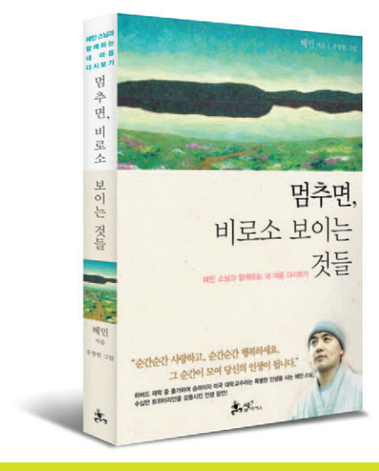
종단 2
진제 스님 봉축 인터뷰
교황청 봉축메시지

종합 3
서울 봉축장엄 등 점등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시방세계 5
강남 자비나눔 대법회

※다음주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제889호, 5월 23일자)는 연등축제 보도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5월,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아름다운 마음보시, 책으로 나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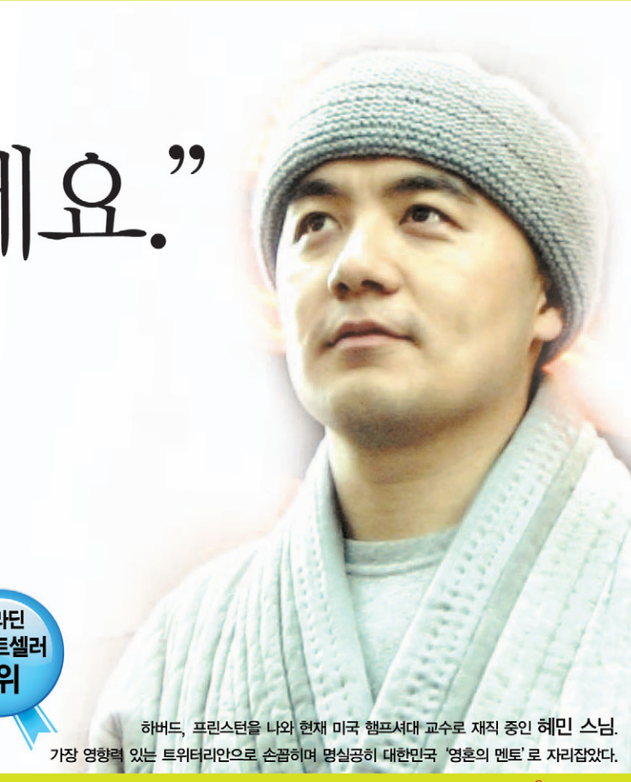


내가 먼저 읽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책!
• 진로를 고민하는 고3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이 엄마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네요~ — 교보문고 독자(jinh***)
• 책 전체가 스님이 저를 응원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트위터(eun_n***)
•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밑줄까지 그으며 편안하게 읽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알라딘 독자(711166***)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우창헌 그림 | 값 14,000원

한국출판인회의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1위
알라딘 베스트셀러 1위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와 현재 미국 햄프셔대 교수로 재직 중인 혜민 스님.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히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혼의 멘토'로 자리잡았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 신원빌딩 2층 | 전화 02-3140-4621~3 |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쌤앤파커스